

From, 블로그씨

오늘은 식목일~ 블로그씨는 귀여운 화분 하나를 구매했어요. 나의 반려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~



용낮톱과 용밤톱

대학 동기 형이 집들이 왔을 때 선물로 준 선인장이다.

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것조차도 종종 까먹는다. 미안...

아직 나는 선인장보다 까다로운 반려 식물이나 반려 동물을 키울 준비가 안 된 듯.

반려자를 찾을 준비는 더더욱...

허브 한 번 키워보고 싶다.